

SW클러스터-지자체-에너지밸리 '협업' 시너지... '혁신도시 시즌2' 본격화

정부, 안정적인 2단계 사업 지원 절실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3년 성과와 의미

〈하〉 상생협력 우수 모델 주목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동력인 혁신도시 시즌2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참여기관들의 '상생 협력'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2022년까지 혁신도시 중심의 산·학·연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전략이어서, 이미 선도적인 역할로 평가받고 있는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의 벤치마킹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혁신도시라는 당초 취지를 살려 재정 투자와 운영을 공동으로 하고,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대표적인 한전이 실질적인 참여 역할을 담당하면서 시너지를 키우고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전남테크노파크 등 14개 기관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전남도도와 광주시가 165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분담했고, 국내 최대 글로벌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한전KDN이 88억여원의 민간부담금을 대응투자하고 있다.

특히, 한전은 수십억원의 민간 대응투자뿐 아니라 지역기업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이전하는 등 실질 지원을 통해 협업 시너지를 키웠다는 평이다. 지역 기업들에게 높은 장벽으로만 인식되었던 한전의 연구 개발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지역 SW/ICT기업들에게 제공됐고, 한전이 보유한 표준기술을 지역기업에게 이전해 기업 성장의 발판이 되고 있다.

에너지 SW융합 분야의 최대 수요처인 한전·한전KDN 등과 직접 수요 맞춤형 R&D 기획에 참여토록 해 미리 수요처를 확보하고, 공동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을 지

원하면서 지역기업이 이들 공공기관의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가상현실 기반의 에너지 시설관리 플랫폼을 개발한 광주의 ICT기업 ㈜유유케이가 2016년과 2017년 2년 연속 한전이 발주한 R&D과제를 수행해 한전 협력사로 성장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는 한전·한전 KDN 등 글로벌 에너지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협업을 기대했던 지역 기업과 협업자로서 지역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의 기대 수준 간 간극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는 평이다.

지자체·공공기관은 SW융합 생태계를

한전·한전KDN 등
공동 연구·기술이전
지역기업 성장 '디딤돌'

SW융합 생태계 조성 협력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 구축
지역산업 부가가치 창출 기회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정부의 '2030 에너지산업 확산 전략'과 혁신도시의 '에너지밸리 조성 계획', 광주·전남의 'ICT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에너지산업 육성 전략' 등이 정책적

으로 맞물려 글로벌 에너지산업 허브 구축에 성큼 다가서고 있다.

한편으로, 오는 2020년이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6년 첫 발을 댄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는 이제 뿌리를 내리는 단계다. 하지만, 자생적인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는 2020년 이후 안정적인 2단계 사업 진행과 지원이 절실하다.

김종갑 전남도 신성장산업과장은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지역 SW/ICT 기업들이 IoT, 빅데이터 등 SW융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고,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성장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면서 "이들 기업의 성장과 지역산업의 자생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라도 2단계 사업이 꼭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 4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광주·전남 에너지 ICT/SW기업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에서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 관계자가 에너지·SW융합산업분야 주요 사업 추진 방향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복길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장 "혁신도시 시너지효과 SW융합클러스터로 극대화"

"SW 중심 사회로 나가는 바로미터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입니다.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가 지역 기관들과 함께 큰 성과를 내며 호남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어 안도감이 듭니다."



박복길(사진) 광주전남SW융합클러스터 사업단장은 SW융합클러스터 사업에 대해 "기업의 기대와 만족도가 크고,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하고 있다"며 "특히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 서부권, 동부권의 다양한 분야 산·학·연 기관이 SW융합클러스터로 묶여 탄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창업과 매출액 신장, 일자리 창출 등은 물론 지역 산업 생태계를 고부가가치화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

다. 박 단장은 특히 한국전력과 협업으로 광주·전남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한전과 한전KDN 등 에너지분야 SW융합기술 최대 수요처가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실제 수요처가 필요로 하는 R&D를 기획하고, 성과물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수요 맞춤형 R&D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진행하

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0년이면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아쉬움도 토로했다. 박 단장은 "SW융합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와 수요가 많다.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과학기술부도 클러스터 2.0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식품기업·취준생 '다 모여라'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오늘 개막

채용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25일 개막하는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식품기업과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엑스포를 주관하는 전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은 이번 엑스포 기간 동안 '2018 농생명 식품산업 구인·구직 채용박람회'와 예비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창업컨설팅 멘토링 데이'를 운영한다.

국내외 기업들이 참여하는 상설전시관 운영과 더불어 전라북도 우수인력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발전과 농생명·식품산업을 이끌 핵심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자리다.

식품산업 구인구직 채용박람회는 전라북도 식품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에 프, 엄지식품, 새롬식품, 참바다(영) 등 성장 유망기업 32개사와 전주교유센터,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전북여성

교육문화센터 등 11개 기관이 참여해 지역인재 등용에 큰 장을 마련한다.

채용박람회는 27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발효식품엑스포 행사장 내 비즈니스관에서 진행되며 ▲기업채용관 ▲정보제공 및 부대관으로 구성해 취업컨설팅(이력서작성, 면접스킬, 이미지메이킹 등), 현장면접 및 채용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창업컨설팅멘토링데이(28일)는 비즈니스관에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관으로 특히, 회계, 세무, 창업, 마케팅, 브랜드, 기술창업 등 15가지 분야에 대해 1대1 매칭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며 창업기업 특강을 통해 예비 창업자 및 신생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제16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내일부터 '근대골목길 투어'

군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전북도, 한국관광공사는 26일부터 사흘간 군산시 시간여행마을을 일원에서 근대골목길 투어 행사를 연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가을여행주간 공모에 뽑힌 이 행사는 근대역사문화도시 군산에서 골목 문화를 체험하면서 세대 간 활발한 소통을 위해 마련했다.

문화관광해설사 소개를 받으며 근대역사 건축물, 박물관, 전시관, 영화촬영 명소를 둘러보고 관광지 퀴즈 이벤트, 버스킹 공연, 특별무대 공연 등을 즐기는 시간이 마련된다.

초원사진관 일원에서는 호남권 첫 향일운동인 군산3·5만세운동 플래시몹, 근대거리 장터, 점괘 바주머니 나누는 덕담 등의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주말에는 원도심 토요일 이벤트, 근대복장 이벤트, 핸드메이드 공예품 전시, 플라마켓 등도 준비된다.

김영섭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군산만이 가진 근대역사 콘텐츠를 알려 관광도시 이미지를 높일 계획"이라며 "지역상권과 연계해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정책대상·의정대상 공모

한국지방정부학회(회장 이희태 신라대 교수)가 지방정부 정책대상 및 의정대상을 공모한다.

기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한국지방정부학회가 지방정부의 우수 정책 사례를 직접 발굴해 시상한다.

지방정부학회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정책사례를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키고 동시에 지방정부 정책 합리화와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3년 처음 실시했다.

지방정부 정책대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3곳이 선정되며 시상식은 오는 2019년 2월 22일 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장에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2015년 1월 이후 지방정부가 자체 시행한 정책 중 지역발전이 크게 기여했거나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로 평가 받고 있는 정책이다.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 의정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서, 추천서, 구비서류 등은 한국지방정부학회 홈페이지 www.klog.or.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문의 한국지방정부학회 사무국 051-999-5714.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덕남동 임야, 싸게 팝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대폭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

